

펄프몰드 주원료는 국민들의 손에서

회원사 상호간 친목도모에 주력

이광문/한국환경포장협회 회장

“연포장이나 플라스틱의 주원료는 대기업에서 충당하지만, 펄프몰드는 국민들의 손에서 나옵니다.”

지난 7월13일 (가칭)한국환경포장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광문 회장은 한국포장산업을 ‘영세성’이란 단어로 말문을 열었다.

“선진국인 경우, 예를들어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은 폐기물에 부과세를 적용시켜 나름대로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포장의 흐름을 간과한 채 옛것을 고집하며 포장 개발에 무관심합니다.

연포장산업의 문제점은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심층고려하여 정책적 시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포장산업에 몸담은지 올해로 6년째인 이광문 회장은 인화와 신뢰, 그리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종 펄프몰드(Pulp Mould) 포장재 생산업체인 (주)한일을 이끌어 오고 있다.

요즈음은 (주)한일에서 품질향상을 위해 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전반을 관장하고, 한국환경포장협회의 회장으로서 업체의 이익을 대변·대관업무를 하고 있다. 예전엔 틈나는 대로 낚시와 테니스를 하며 마음적 여유를 찾았으나 지금은 이 중적인 업무로 그 틈이 안난다고 한다.

인하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해 현대중전기를 거쳐 (주)로케트기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광문 회장은 협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포장폐기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쓰레기로 버리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포장재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포장재인 펄프몰드(Pulp Mould), 골판지패드 등 폐지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며 “생산단계에서 부터 회수까지 폐기물의 감량화, 재자원화, 처리의 용이화를 위한 유통체계 등을 이용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환경을 더욱더 친화적인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지구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지난 7월 13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창립총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광문 회장

(가칭)한국환경포장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방향은 환경포장 위생재의 재회수 처리 및 재자원화, 생산제품 적용 공급확대, 구입촉진을 위한 홍보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연구 발표회와 협회 상호간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를 설정했다.

“펄프몰드가 제작비면에서 다른 포장재보다 비싸지만 총체적-재활용으로 볼 때는 경제적”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아직까지 국민들의 포장의식수준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펄프몰드나 골판지패드는 신문지같은 폐지를 이용해 생산되는 포장재이므로 국민들의 조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환경과 한국의 포장산업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중심형이라 중소기업이 아무리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했다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에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피력한 이광문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와 국민들에게 포장환경에 대한 홍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

변준섭 기자